

‘본업 충실 + 혁신 강화’...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 가속화

민영경제가 중국식 현대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민영경제는 이미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민영기업은 전체 기업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첨단기술기업중 민영기업은 42만여개로 역시 92%를 넘어섰다.

다수의 민영기업은 본업에 집중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59년 설립, 1998년 상장에 성공한 념하 오충(吳忠) 계기회사는 60여년간 제어밸브(控制閥) ‘한우물’만 파왔다. 오충계기회사 수석 엔지니어 왕학봉(王學朋)은 “상장후 물·전기 계량기 등 분야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다 보니 본업인 제어밸브 분야에서의 핵심경쟁력이 약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점점 잃어갔다.”고 말했다.

마옥산(馬玉山) 전임 회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잘하는 분야만이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는 제어밸브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제 오충계기회사는 300만대(세트) 이상의 장비를 출하하고 자체 핵심기술 부족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수십개의 공정을 극복하며 제어밸브를 기반으로 정전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소거



념하 오충계기회사 마옥산(馬玉山, 왼쪽) 전임 회장이 자동화산업원시험실에서 기술자와 교류하고 있다. / 신화넷

인(小巨人)기업’으로 성장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발표한 ‘2024 중국 민영기업 500대 기업’에 따르면 이중 제조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4%에 달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민영기업은 본업을 지키면서도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핵심경쟁력을 키웠다.

광주 명락(明路)장비회사의 성장사는 혁신으로 기업을 키운 발전사라 할 수 있다.

자체 총조립 시스템은 자동차 용접 생산라인의 최고 핵심 단계로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폐기물과 제조비

용이 늘어난다. 때문에 중국 자동차 제조 기업은 오래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다.

명락장비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저렴한 가격’ 전략으로 자체 연구개발한 시스템을 출시했고 결국 북경자동차(BAIC), 지리(吉利)자동차 등 다수 중국 기업의 호평을 받았다.

이제 명락장비회사의 총조립 시스템은 3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민영기업의 발전 뒤에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대련 제일상호인덕터(互感器)회사는 중국 상호인덕터 분야의 선두기업중 하나다. 청년인재 유치를 위해 회사는 멘토링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인재 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받아 로녕성급 기업기술센터와 대련시급 신뢰성 연구공정실험실을 설립하여 기술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상호인덕터 연구개발과 보급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부 서비스 역시 끊임없이 보완되면서 민영기업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곡(瑞谷)과학기술(대련)회사 직원 오세걸(吳世杰)은 “기업의 등록 변경, 세무 등록 등 업무 처리에서 관련 플랫폼을 리용하면 한번의 신청으로 끝난다.”면서 “덕분에 기업은 정밀 배아링 연구개발과 제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중화인민공화국민영경제촉진법>을 시행하면서 본업에 충실하고 실제 업무를 강하게 키우는 민영기업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서비스 보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양호한 상업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가가 본업을 고수하고 실제 업무와 자주혁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넷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정책 순항중



1월 8일, 산둥성 청도시의 한 쇼핑몰에서 식기세척기를 살펴보고 있는 고객. / 신화넷

소비재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 정책이 범위를 확대하며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0일 관련 부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손잡고 ‘량신(兩新, 대규모 설비 갱신·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정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에 직접 3,000억원의 국채자금을 배정해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범위를 확대, 해당 정책은 올해 내내 실시된다.

지난 1월과 4월에는 총 1,620억원의 중앙정부 자금이 지방으로 하달됐다. 3, 4분기에는 1,380억원이 각각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정책에 힘입어 올해 소비액이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고 정책이 소비 확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여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뚜렷하게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

약품·의료기기 수입액 1.14 억원



2024년 12월 25일, 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왼쪽)이 해남 박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 신화넷

‘무관세’ 정책 효과 톡톡

해남자유무역항의 의료산업이 ‘무관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해구세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5일부터 해남자유무역항이 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한 이후 수입품 규모는 1억 1,400만원, 루직 감면 세액은 약 1,50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해남 봉관(封關, 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영 전 해남 박오(博鰲) 락성(乐城) 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 등록돼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 분야의 과학연구기관은 약품(백신 제외), 의

료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개 병원이 해대 대상 자격 심사를 통과, 주요 신청 수입 품목으로는 인공와우 이식체 및 그 부품 등 약품·의료기기 제품이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은 수입 약품 및 의료기기의 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수입 의료기기에 속하고 제품 가격이 150만원인 보조 인공와우 이식용 로보트팔·로보트손의 경우 단위 기준 약 19만 5,000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 수입 의약품중 제품 가격이 약 5만원인 당뇨병 치료제는 한병당 약 6,000원의 세액이 면제된다. / 신화넷

심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위한 새 조치 발표

광동성 심수시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6월 19일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심수 전해(前海)는 외국 인재 서비스 최적화, 심수-향향 공동 인재유치 매커니즘 심화, 향향-오문 전문가 업무 편의 등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내놓을 계획

이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기술, 데이터 등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전해는 지적재산권 증권화 상품을 출시하고 향향 상장 육성기지를 구축하며 심수-향향 크로스보더 데이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로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경제체

구축’ 측면에서 전해는 다국전자상거래, 보세 수리, 보세 전시·교역 등 새로운 모델과 업종을 적극 발전시키고 운송, 금융, 통신 등 우위 산업을 공고히 하며 게임 수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지적재산권, 다국관광, 국제 컨벤션 등 업종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과학화·정밀화·법치화 관리 모

델 완비’ 측면에서 전해는 국제 상업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더욱 완벽화하고 조정 기관을 모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조정·중재·소송의 원스톱 다원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 신화넷

‘제 9 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룩색·디지털·서비스 무역에 집중



6월 19일,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린 ‘제 9 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는 룩색 무역,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신질생산력 성과 전시에 더욱 주목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간 무역액은 2,000억 달러에 육박, 10년간 년평균 증가율이 약 6.3%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 무역 협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프로젝트도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6월 18일, ‘제9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네발 참가 업체가 전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눈부신 성장으로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

▶ 1 면에서

‘창업의 싹’에서 ‘산업의 꽃발’으로

“지난날 우리의 원자재는 완전히 외부에서 조달되었지요. 조달 주기가 길고 물류비용도 높았죠. 이 공장이 생기면서 우리가 직접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공장의 발전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화경제개발구에서 길림성진파이크(金派格) 제약 화학의약품 원료약품기지 프로젝트 책임자 조해도는 기업의 3기 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자랑스럽게 말

했다.

소개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유도체 제품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의 2,500키로그램에서 7,500키로그램으로 증가해 회사 관련 제품의 사용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글루타치온(谷胱甘肽)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고특생물(古特生物)길림생산기지에서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고특생물심수판매센터로 유럽과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우리 공장의 글루타치온 연간 생산량의 80%는 수출에 사용되는

데 기존 생산라인은 이미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원래 공장을 개조 및 확장했습니다. 가동후 생산액은 2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길림고특 품질부 경리 조광래는 방금 완공된 새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업의 도약적인 발전은 우리가 당시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심사 절차의 ‘물리적 통합’에서 서비스 효능의 ‘화학적 융합’으로, 연변은 제도 혁신으로 영업 환경의 새로운 생태를 재구성하고 있다.

돈화시를 레로 들면 기업 대리, 정책 실행 창구 및 ‘기업 서비스 전용 구역’, ‘원스톱’(一网通办) 자

동 서비스구역 등을 설립하여 기업 대리업무 목록 297개를 정리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조정, 해결하여 기업 서비스가 원활하고 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수요가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을 위해 대리 서비스 400여차례를 제공했다.

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변주는 최근 <2025년 지속적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행동 실행 방안>을 발표, 정부, 시장, 법치 환경 건설을 중심으로 31개 조목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

아 고효율적이고 편리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발전 생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 업무 처리의 ‘막힌 점’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 건설로 문제를 해결하고 15가지 조치를 포함한 정부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을 내놓아 ‘차별 없는 접수’, ‘전 과정 웹 처리’(全程网办) 및 지능 보조 서비스를 실현, 기업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업 전 생명주기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기업 지원 정책 직접 전달 및 빠른 함유 시제를 통합하여 기업 요구사항 신속 전달 및 빠른 처리 채널을 강화함으

로써 기업이 정책 혜택을 제때에 누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장백산기술에서 두만강변에 이르기까지, 연변주는 ‘과감히 앞장’서는 기백으로 변강 경제 판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일대일로’ 제안과 동북 진흥 전략이 이곳에서 교차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 유전자, ‘변강은 변두리가 아니다’라는 개방적 사고, ‘과감히 타파하고 과감히 세운다’는 개혁의 기백이 여기서 교차하며 충돌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바로 세시대 동북 진흥의 가장 감동적인 해석일 것이다.

/ 길림일보